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도시 오미 히노에서의 생활

시가현
히노초



블루메노오카



꽃의 마을을 만끽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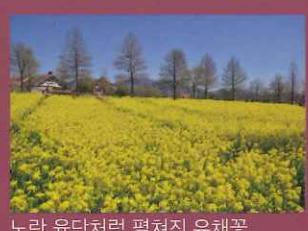
입구

유럽의 시골마을에 들른 듯한 느낌에 젖게 하는 시가 농업공원 블루메노오카, 히노의 풍요로운 자연과 농산물을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문화와 거리경관에 조화시켜 조성하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독일어로 블루메)이 가득한 공원 내에서는 소시지 만들기 등의 먹거리 체험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습니다. 양, 토끼, 알파카 같은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일을 여유롭게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테마파크입니다.



양 방목



형형색색의 런던

히노초의 위치



히노 '보물지도'



• 히노초의 천연 기념물

구마노의 하다리마키가야 비자나무 … 일반적인 비자나무 종자는 표면에 세로로 패인 주름이 직선인 반면, 구마노의 비자나무는 주름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감기듯이 패여 있습니다.

가이가케다니 혼샤쿠나게(진달래속) 군락 … 본래는 혼샤쿠나게는 높은 지대에 자생하는 것으로, 이처럼 낮은 지대에 군생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뭅니다.

와타무키야마 산기슭의 접촉변성대 … 고생대에 탄생한 석회암과 점판암에 중생대 초기에 화강암이 관입하여 바위의 성질이 변한 것입니다.

가이가케의 병풍바위 … 스즈카 산맥의 조산 운동으로 주위의 바위산은 습곡 지형이 되었지만,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퇴적암입니다.

벳쇼 다카시코조 갈철광 … 땅속 식물의 뿌리나 가지 주위에 철분이 부착되어 형성된 원통형 어두운 모양의 광물입니다.

■ 대중 교통기관



그림 보켄노모리

그림 동화로 유명한 그림 형제는 평생 독일의 메르헨 가도를 거슬러 올라가며 수많은 동화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림 보肯노모리는 이름은 메르헨 가도에 위치한 지명과 루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림 보肯노모리 캠핑장은 코티지, 오토캠핑 사이트, 구획이 없는 프리 오토캠핑 사이트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 보肯노모리에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면서 자연을 활용한 목공예 교실과 화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만끽하자!



코티지



오토캠핑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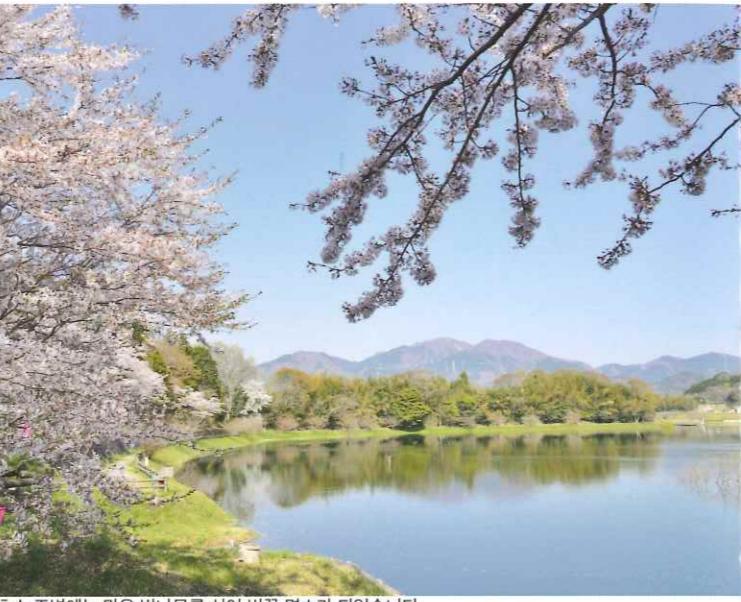
대형 놀이기구 레오파크

수면 위에 흔들리는 와타무키야마산

봄 소식과 함께 미나미산노 축제를 비롯한 전통 제례가 각지에서 거행되며, 봄 햇살 아래 호이노보리 장식이 짹트기 시작한 초목에 화려함을 더해 줍니다.

와타무키야마산을 배경삼아 형형색색 피어나는 꽃들. 히노의 거리에 살랑대는 바람 내음에 마음이 끌리는 봄. 활짝 핀 벚꽃과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히노가와 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책길과 운동공원 등도 잘 정비되어 있고, 근처에는 나카노 성터(히노 성터)가 있어서 자연과 역사를 손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남동부, 가이가케다니의 표고 300~400m 지대에 자연 군생하는 혼사쿠나게(진달래속)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 품종으로, 4월 하순~5월 상순에 걸쳐 약2만 송이의 꽃이 일제히 피어납니다. 5월 중순부터는 쇼호지 절의 '후광 등나무' 등 다양한 꽃들이 마을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입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마을의 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이 마을에 펼쳐지는 봄의 향연을 즐겨 보십시오.



히노·사계절 이야기



여름의 햇살을 받아 힘차게 약동한다

와타무키야마산에서는 너도밤나무를 대표로 하는 하록활엽수가 햇살을 가득 머금고 반짝입니다.

제7부 능선부터 정상 부근에 걸쳐 볼 수 있는 너도밤나무숲은 거의 자연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히노초에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이전부터 스즈카 산맥의 고지대를 뒤덮으며 장대한 경관을 연출했던 너도밤나무 원시림의 태곳적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남아 있는 삼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이 숲이 마을의 소중한 재산인지를, 와타무키야마산에서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내려오는 햇살과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멈춰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산기슭의 풍요로운 자연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시가농업공원 블루메노오카에 오시면 여름 햇살을 향해 힘차게 피어있는 해바라기의 늄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타무키야마산의 너도밤나무 숲은 등산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히노·사계절 이야기



벼 이삭이 영글어 황금빛으로 빛난다

더위가 한풀 꺾여 공기가 선선해지고 주변에 가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알알이 영근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황금빛 이삭이 바람에 흔들려 물결을 일으키며 수확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논밭 너머로 우뚝 솟아있는 와타무키야마산도 어딘지 모르게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뭇잎들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히노초의 벼농사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야요이시대 중엽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히노가와 강과 사쿠라가와 강 사이에 위치한 농지에서는 벼를 중심으로 히노나와 녹차 등이 재배되고 있고, 오미 소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히노산 오미 쌀과 오미 히노 소의 산지로 발전하였고, 녹차나 히노나의 특산품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각지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제례가 거행되는데, 헤이안 시대부터 8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오미 나카야마 토란 크기 경합 축제(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는 나카야마니시 마을과 나카야마히가시 마을의 토란 길이를 비교하여 풍작을 점치는 특이한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들판을 가득 메운 코스모스 꽃밭



가이가케의 히노 달리아 화원

히노·사계절 이야기



가을



토란 크기 경합 축제



블루메노오카로 향하는 길목에서

히노·사계절 이야기



겨울

산을 에워싼 숨막힐듯한 아름다움

계절 변화에 따라 자태를 바꿔가며 보는 이를 즐겁게 해 주는 마을의 상징 와타무키야마산. 마을에 눈이 내리기 전, 산기슭에서는 4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유틴 역전 마라톤 대회가 열려 젊은이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첫눈이 내려 눈으로 뒤덮힌 늄름한 와타무키야마산의 자태는 더욱 성스러워 보이고, 산 정상은 더없이 아름답게 빛나는 겨울. 1월 중순 경부터 절정기를 맞이하는 무빙이 만들어내는 은빛 세계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시가현 안팎에서 찾아드는 수많은 등산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른 봄 마을에서는 상가와 가정 집 등 약200 곳에 다양한 시대의 오히려 인형을 장식하는 '히노 히나인형 축제 기행'이 열립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지고, 꽃이 활짝 피는 봄날이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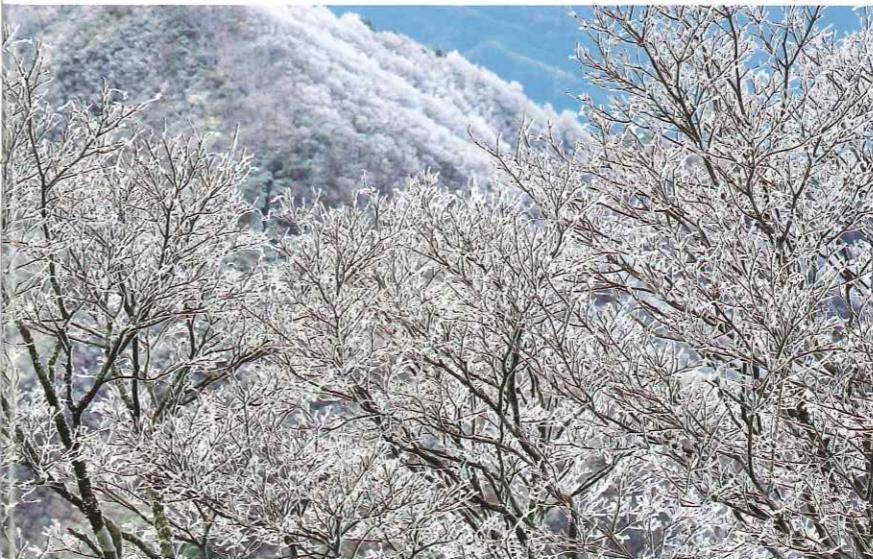
히노 히나인형 축제 기행



日野町民駅伝大会
スタート
日野町連合青年会



히노초 연합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역전 마라톤 대회



무빙으로 뒤덮인 와타무키야마산

고장의 자랑 가모 우지사토

가모 가문은 중세, 히노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무장가문입니다. 오닌의 난에서는 가모 사다히데(지칸)가 사쿠라다니의 오구라 가문과 함께 동군으로 활약했습니다. 그 후, 다카사토(사다히데의 차남), 사다히데, 가타히데로 대를 이어가는 동안에 롯카쿠 가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쓰루치요(훗날 우지사토)는 가모 가타히데의 장남으로 1556년에 나카노성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로 진출할 때, 가모 가문도 노부나가의 신하가 되었고 쓰루치요는 인질로 기후에 보내졌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되어 이름을 다다사부로 야스히데로 개명한 후, 이듬해 첫 출전에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에 노부나가의 딸 후유히메와 결혼한 다음 히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도 오다 가문의 가신으로서 각지를 돌았습니다. 1582년의 혼노지의 변 때는 아즈치성의 니노마루를 지키고 있던 부친 가타히데와 함께 노부나가의 처자를 히노성으로 대피시켜 보호하였습니다.

노부나가의 사후에는 하시바 히데요시의 신하가 되었고, 시즈가타케 전투와 고마키 · 나가쿠테 전투에서 공적을 올린 결과, 이세 마쓰가시마 12만석의 영주가 됩니다. 1585년에는 기슈 정벌과 옛추 정벌에 참전하였고 이름을 야스히데에서 우지사토로 개명합니다. 같은 해에 다카야마 우콘 등의 추천으로 천주교 세례(세례명은 레온)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1587년의 규슈 정벌, 1590년의 오다와라 정벌에서 공을 세워 아이즈 4군과 미나미센도 5군(또는 12 군)을 합쳐 42만석의 영주가 되어 구로카와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슈 지방으로 옮긴 우지사토는 영지 관리뿐만 아니라 히데요시의 대리인 역할도 수행하였는데, 구노해의 난을 평정할 때는 도요토미군의 총 지휘관으로 총 6만여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그 공적으로 의해 1591년에는 73만 4000석(1594년의 토지조사 후에는 91만 9320석)의 영주가 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리 데루모토의 다음 가는 대 영주로서 아이즈구로카와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나카노 성터



신교인 절 본당(시가현 지정 문화재)



가모 우지사토의 초상화(고토쿠지 절 소장)

전국시대의 뛰어난 무장이자 문학인이었던 대 영주 가모 우지사토.

고장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고향을 떠난 후에도 히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의 정성은 4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모 우지사토가 사랑한 고향, 히노

오미 히노 상인들의 400년 역사와 상술 히노초는 오미 상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불황기에 공공사업의 역할을 수행했던 '오타스케부신'에 의해 세워진 오쿠자시키(현 히노초립 오미 히노 상인관)

오미 히노 상인의 등장과 '히노 그릇' '히노 조제약'



오미 히노 상인의 역사는 '히노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400년 전의 에도시대 초기에는 그릇이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고 히노는 전국 칠기의 8대 산지로 손꼽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민이 사용하던 칠기인 히노 그릇을 판매하던 이들이 오미 히노 상인입니다. 1712년경에는 오쿠보초에서만 380여명의 상인이 간토 평야의 농민층을 대상으로 '외상 판매'라는 기발한 상술을 펼쳐 칠기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이타마, 군마, 도치기 등의 옛 농촌부에는 '오미국 히노 그릇 상인'이 활발히 장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제약(한방약)도 오미 히노 상인에 의해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나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히노 조제약'은 히노의 보부상이었던 쇼노 겐조가 교토에서 의사가 된 후 만년에 히노에서 제약업을 시작한 것이 출발점으로, 300년 전부터는 히노 그릇을 대신하는

신흥 산업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0년 전에 만들어진 '만병감응환'은 히노 조제약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오미 지방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명약입니다.

히노 조제약의 특징은 그 판매 방법에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약을 가정에 두고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차후에 수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히노 조제약은 특약점을 각지에 설치하여 약을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프랜차이즈 방식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점 앞에는 히노에서 가져온 옷칠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히노 조제약 판매를 통해 크게 돈을 벤 오미 히노 상인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히노 축제에 등장하는 호화로운 축제수레(에도시대에 20기 건조)도 제약 산업 덕분에 서민들의 생활까지 윤택해진 결과로 탄생할 수 있었던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병감응환의 간판



경내에는 축제 반주와 축제수레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져 열기로 가득합니다.



미코 일행이 십 여대의 축제수레가 늘어서 있는 앞을 지나 오타비쇼로 출발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룹니다

봄의 밤하늘을 타고 흐르는 축제 음악 소리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마미오카 와타무키 신사의 정기 축제인 히노 축제. ‘히노 히키야마 마쓰리’라는 이름으로 시가현의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비와코 호수 동부 지역 최대의 봄 축제입니다. 축제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시가현 내에서 가장 많은 16대의 축제수레와 수레의 화려한 장식품들은 히노 상공업 종사자들의 번영의 정도와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5월 2일에는 오후부터 히노 축제의 전야제인 니시노미야 축제가 열립니다. 해가 저물고 거리에 불이 켜질 무렵이 되면 붉은 조명등으로 밝혀져 더욱 우아한 모습을 뽐내는 축제수레가 거리로 나오고, 마을 곳곳에 축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피리, 큰 북, 작은 북, 징 등이 어우러져 내는 소리는 신령이 깃든 축제수레를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날은 밤늦게까지 축제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축제날 아침

축제날 새벽 3시, 고즈케다에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히노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소리를 시작으로 미코(신을 모시는 어린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하카마 전통의상을 입은 100여명의 신초샤와 함께 고사 신사로 출발합니다. 미코와 신초샤가 신사에 도착하면, 이어서 각 마을의 신폐와 축제수레를 짚어진 젊은이들이 신사로 향합니다.

日野祭

호화찬란

히노 축제

마을의 역사를 오늘날에 전한다

출발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축제수레에서는 일제히 축제 음악을 연주하고, 축제수레를 짚어진 남자들의 힘찬 구령이 더해지면서 경내는 순식간에 열기에 휩싸입니다. 미코를 앞세운 축제수레 등이 줄지어 오타비쇼로 출발합니다. 미코와 신초샤가 오타비쇼에 들어가고 3대의 축제수레 앞에서 제전이 거행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3대의 축제수레 중 2대는 에도시대 중후기에 우지코 가문이 재건한 것으로 소중하게 보존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노 축제는 화려한 축제수레의 행렬에 더해, 신사와 오타비쇼 사이를 미코와 축제수레를 중심으로 한 행렬이 행진하는 고풍스러운 ‘신이 납시는 축제’로서 역사의 무게와 자긍심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치카도 간노칸에서의 연주(가을의 사자키마도 아트에서)

국제교류 파트너

고도의 정보화와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시야의 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히노초에서는 한국의 은산면과 브라질의 엠부시 간의 문화,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엠부시에서 보아 따르지

브라질 엠부시와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80년입니다.

이 해에 개최된 전국 교직원 스모 선수권 대회에 브라질 스모 연맹이 방문하였는데, 이들이 숙박한 가정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을 받은 것이 우호를 더 깊게 다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엠부시에 히노·브라질 우호회가 발족되었고, 교류 활동은 점차 촉진되어 1984년 5월 2일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아동 그림의 교환이나 사절단 교류, 중학생 축구 교류, 미술전 등을 통해 점점 깊이 있는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도 브라질 요리를 메뉴에 넣는 등 다양한 국제문화 이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엠부시의 개요

엠부시는 브라질 연방공화국 상파울루주의 주도입니다. 상파울루시의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76km², 해발 825m(시청 위치)의 도시로, 1959년에 시 행정이 시행되었으며 언덕과 골짜기; 녹색자연이 이어지는 돌판길이 아름다운 조용한 마을입니다. 기후는 고지대 아열대이며 상파울루시와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엠부시의 일본계 주민은 약 1200명(약 300세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절반의 세대가 소비 도시 상파울루시 근처에서 꽃과 야채를 재배하는 근교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꽃의 도시 엠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노동자 주택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인구는 약 25만명으로 일본과의 시차는 12시간입니다.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통화는 레알입니다.



음악을 통한 교류

산포요시!

오미 히노의 시골체험

진심이 담긴 교류를 통해 마을을 활기차게

오미 히노 상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인 히노에서는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세상에도 좋다’라는 뜻의 산포요시 정신이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미 히노 시골체험’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 받아 ‘맞이하는 사람(판매자)에게는 자신감과 자부심의 회복을, 지역(세상)에는 활력을, 찾아 오는 사람(구매자)에게는 진정한 감동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산포요시’를 마음에 담고 풍요로운 자연, 역사, 문화 같은 소중한 자산들을 활용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미 히노 시골체험에서는 농촌 민박 체험뿐만 아니라 히노가 원산지인 히노나 수확 체험, 모내기 등의 농림업 체험, 덧치 양개 만들기 체험 등 먹거리·생활문화 체험, 거리 산책과 오미 히노 상인에게 배우는 역사·문화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여행자나 교육 여행, 연수 여행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히노 고유의 매력을 지닌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이곳을 찾는 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의 내용 가운데는 방문객에게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많은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자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방문객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의 교류’를 통해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오미 히노 시골체험을 통해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선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생·홈스테이한 가정과의 교류)



중국·칭화 대학생 인턴쉽 연수·농촌 민박 체험



히노나 절임

히노초가 발상지인 순무의 일종으로 만든 전통 야채 절임으로, 지금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미 히노 쇠고기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맑은 히노 특유의 자연 풍토가 맛 좋은 육질을 만들어냅니다.



넷치 양갱

도제일이하던 견습생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팔 등을 주원료로 만든 자가제 양갱을 죽순 껌질에 싸서 귀향 선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히노나 드레싱

히노와 식초가 만나면 선명한 분홍빛을 띠게 되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 드레싱입니다. 순무의 일종인 히노나를 갈아 넣어 순무의 풍미와 식감이 느껴집니다.



히노의 특산물



이가 만주

단팥소를 경단 반죽에 싸서 찹쌀을 묻혀 쪄낸 과자입니다. 밤송이를 닮았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카키·아라레

기후 조건이 좋은 논에서 재배된 하부타에 쌀을 원료로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히노 그릇

에도시대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칠기로 그 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기계 세정 같은 것이 가능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칠기로서 다시 사랑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 따스함이 느껴지는 감촉이 특징입니다.



녹차

히노의 자연과 풍토 속에서 자라난 풍부한 풍미의 녹차입니다.



천연 사슴 통조림

유해 야생동물로 수렵된 사슴고기를 된장 맛으로 매콤하게 조려낸 통조림. 사슴고기의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민속주

청아한 지하수와 히노의 쌀을 사용하여 고집스러울 정도의 깊깐함과 애정을 쏟아 전통 양조법으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으로 빚어냅니다.